

90년대의 석유시장전망과 우리의 대응

趙東成

(서울대 경영대 교수)

1. 머리말

1973년 美國에서 일어난 한 기이한 현상이다. 어느날 갑자기 주유소마다 긴자동차 행렬이 늘어선 진기한 현상이 벌어졌다. 행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골목골목을 돌아 수백미터씩 이어졌다. 휘발유 1갤런을 더 넣어두기 위해 자동차들은 거리를 달리기 보다 모두 주유소로 몰려 든 것이다.

처음에는 차례가 되면 그래도 탱크를 채울 수 있었으나, 며칠이 지나서는 1대당 10갤런, 5갤런, 마지막에는 3갤런까지 제한되었다. 그러니까 3갤런을 넣기 위해 3갤런을 소비하는 넌센스까지 벌어졌던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은 바로 산유국의 물량제한으로 비롯된 석유위기의 한 현상이다. 당시 美國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벗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졌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17년이 지난 지금 美國은 아직 건재하다. '79년의 제2차 석유위기까지도 무사히 넘기고 美國은 여전히 美國으로 남아 있다. 美國뿐만 아니라 유럽, 日本등 선진공업국들도 계속해서 번영을 누리고 있다. 공업화라는 측면에서 石油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긴 했으나 우리나라도 잘 견뎌내었다.

1, 2차 석유위기를 겪고 난 지금 세계는 석유위에 상당한 면역을 갖게된 듯 싶다. 자신감이라고나 할까 여유까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알아 둘 것은 1, 2차 석유위기가 소비자들의 현명한 대처로 극복된 것이 아니라, 생산국들의 자국이기주의 때문에 얻어진 '행운' 이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석유위기는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는 얘기다. OPEC국가들이 담합만

한다면 언제든지 세계를 또 다시 공포속에 몰아 넣을 수 있다는 말이다. 현재로서는 담합의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지만, 각기 매장량이 바닥에 가까워온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되고 소비국들만 계속해서 번영을 누린다는 피해의식이 커지면 생산국들은 언제든지 새로이 뭉쳐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최근 다시 제3의 석유위기설이 대두되어 '90년대 중반이라는 시간표까지 제시되어지고 있다. 물론 石油가 언제쯤 바닥이 날지, 또 생산국들이 어떤 상황에서 담합을 하게될지 지금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다.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BP社가 지난 '87년말 자료에서 확인된 가체매장량과 세계의 연간 소비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석유사용 가능연수는 41년 6개월 내외이고, 또 英國의 석유전문잡지 오일 앤드 에너지 트렌드(Oil & Energy Trends)지와 美國의 오일 앤드 가스 저널(Oil & Gas Journal)지는 '88년말 자료를 토대로 石油의 가체연수를 각각 '47년과 '43년으로 잡고 있다.

이와 같이 추정연수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어쨌든 인류가 石油을 쓸 수 있는 기간은 40년을 약간 상회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세계적 石油부존량의 한계는 언젠가는 석유파동으로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과연 이러한 석유위기의 가정이 '90년대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면 이를 위해 먼저 '80년대까지의 석유시장을

살펴보고 '90년대의 비전을 도출해 보겠다.

2.1, 2차 석유위기 당시의 세계석유시장

'70년대에 있었던 1, 2차 석유위기는 제4차 中東전쟁과 이란의 회교혁명이 도화선이 되었다. 당시 메이저에 의해 통제되던 석유가격이 제1차 석유위기를 계기로 OPEC가 등장함으로써 급등하기 시작해서, 석유자원국유화 정책으로 인한 정부 공식판매가격(GSP; Government Selling Price)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산유국이 완전히 통제권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1978년 회교혁명으로 이란에서 석유금수조치가 내려지자, 石油공급이 부족해져서 가격상승 압박이 가중되고, 결국 '78년 12월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52차 OPEC총회에서는 기준유가(아라비안라이트)를 '79년도에 분기별로 나누어 총 14.5% 인상한다는 합의에 이르렀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온건파들의 회복노력에도 불구하고 石油소비국들의 원유쟁탈전이 지속되면서 현물가격이 계속 치솟자 OPEC는 동년 3월 26일 특별회의를 소집, 아부다비총회에서 결의한 계획 인상을 14.5%를 4월 1일부터 한꺼번에 적용시키기로 함과 동시에 회원국들이 독자적으로 원유거래가격에 할증료(Surcharge)를 부과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이로써 그 동안 原油의 품질에 따라 산유국별로 균형을 유지해오던 가격체제는 무너지고, 각국이 임의대로 정하는 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혼란과 원유가격 다변화현상이 일반화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렇듯 혼란을 거듭하면 석유시장은 1979년 후반에 들어서자 동절기를 앞둔 수요증가와 이란의 감산 및 美대사관 인질사건 등 정치문제가 뒤엉키면서 더욱 악화되어 12월에는 현물가격이 공식 판매가격의 2배이상인 41달러선을 넘게 되었다.

이미 고삐가 풀린 산유국의 油價인상 경쟁은 현물가격을 선행지표로 숨가쁘게 진행되었고, 마침내 1980년 8월 이란-이라크 전쟁이 발발하기 한달 전에는 기준원유가격(아라비안라이트)이 '30달러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 가격이 다음 해인 1981년 10월 29일 34달러선에서 단일화되어 멈추어 서기까지 원유가격인상 행진은 1978년말 배럴당 12.70달러에서 무려 168% 인상되었던 것이다.

3. '80년대의 석유시장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석유위기가 진정국면으로 넘어가면서, 세계석유시장은 새로운 질서와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세계경제는 장기적인 침체국면으로 접어들고, 주요 소비국들은 에너지소비절약 및 대체에너지 개발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석유수요의 급격한 감소와 총에너지 중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다.

세계 에너지중 石油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8년 46%에서 1987년 38%로 점차 감소하고, 반면에 석탄의 비중은 28%에서 31%로 증가하고, 원자력의 경우도 2.3%에서 5.2%로 상승했다.

수요측면에서 보면 제1차 석유위기가 있던 1974년 이후 잠시 감소세를 보이다가 1976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반전했으나, 제2차 석유위기 이후 1979년부터 다시 줄기 시작하여 이러한 수요정체현상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1989년 세계석유소비비는 6천1백만B/D 수준으로 제2차 석유위기 시기인 1979년 6천4백만 수준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이러한 석유수요의 감퇴현상은 주로 석유를 많이 쓰고 있는 OECD제국의 수요감소에 따른 결과이며, 개발도상국들은 석유위기 사태에도 불구하고 석유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여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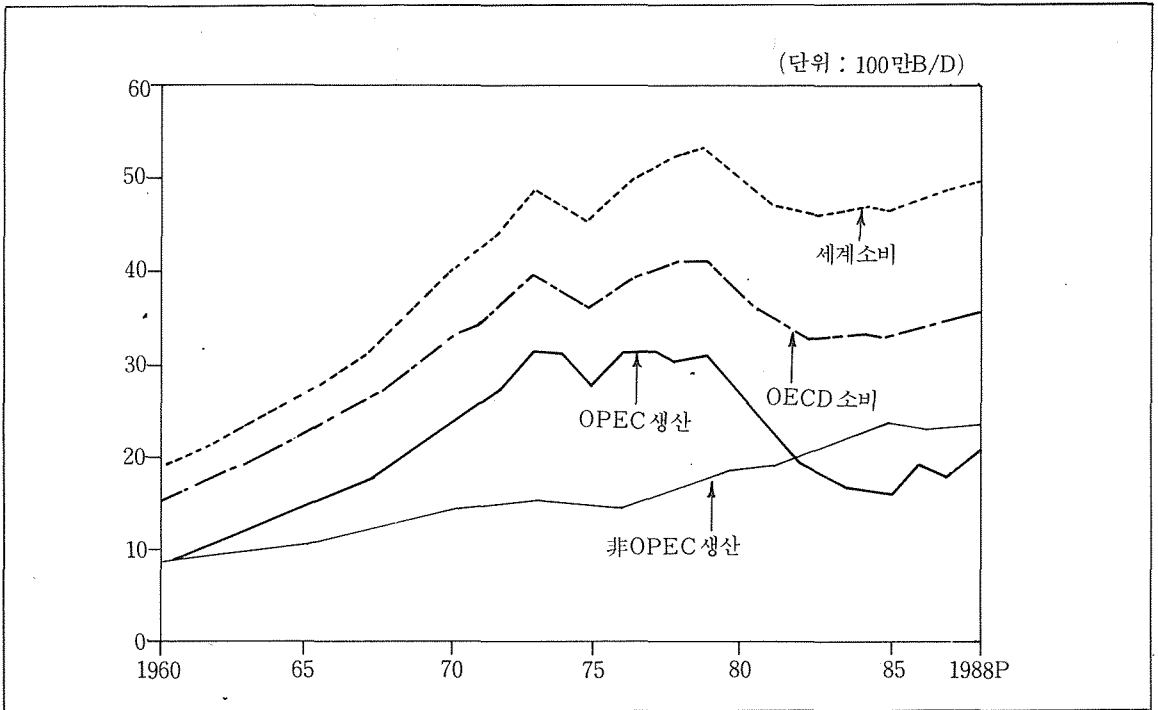
이와 같은 石油수요의 감퇴와 石油의존도 감소로 석유제품의 수요구조도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 즉 石油수요의 감소는 타에너지로의 대체가 용이한 重質油쪽에서 현저히 나타나 重質제품의 수요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中·輕質제품의 수요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생산측면에서도 고유가와 공급불안으로 石油소비국들이 非OPEC지역에서의 석유개발을 촉진해서 상당한 구조적 변화를 보였다.

다음의 <그림>에서 보듯이 石油수요 감퇴로 세계산유량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한 1980년 이후 OPEC산유국의 산유량이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非OPEC산유국은 산유량이 꾸준히 늘어나 1982년에는 OPEC창설 22년만에 처음으로 非OPEC의 산유량이 OPEC산유량을 앞지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수요·공급적인 환경변화로 그 동안 오르기만 하던 油價는 1982년부터 하락세로 바뀌었다. 이란·이라

〈그림〉 세계의 석유 수급 (1960~1988)



〈註〉 1. Excluding OPEC
 2. Including Bunkers,
 〈資料〉 OPEC Review, Summer 1989, P. 114.

크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양국은 전비조달을 위해 생산을 늘리고, 사우디가 추가생산을 유지하며, 非OPEC산유국의 산유량이 증가하는 반면, 石油소비는 줄어들고 또한 재고를 대량 방출하자 공급과잉상태가 벌어져 OPEC 산유국들은 판매난에 부딪치면서 그 동안 부과해오던 할증료나 프리미엄 등을 폐지하는 한편 할인판매에 나섰다.

그러나 소비국들은 공급과잉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여 경쟁적 수입을 억제하였고, 이러한 신중한 태도는 결국 OPEC와 非OPEC간의 가격경쟁은 물론 OPEC 내부의 결속을 약화시켜 판매경쟁을 가져오고 현물가격 하락을 더욱 촉진하게 되었다.

현물시장은 한때 단기적인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완충역할을 해왔으나, 상황이 이렇게 발전되자 국제 석유시장의 石油수급과 가격조절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는 거래처로 발전했다. 종전의 原油거래형태는 공급선 안정확보를 위해 소비국들이 장기계약을 선호하였고, 대부분 가격조건이 공식가격(GSP)이거나 제2차 석유위 기때는 이에 별도의 웃돈이 없혀지는 것이 상례였으나, OPEC의 시장지배력이 약화되면서 할인판매가 성행하고, 이 할인판매는 편의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여 공식가격의 장기계약분을 점차 스파트 또는 스파트 가격연동으로, 또한 넷백가격 적용등으로 바뀌었다.

실추된 시장지배력을 되찾으려는 OPEC와 이에 맞선 非OPEC산유국의 충돌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난 것이 가격전쟁(Price War)이었다. 극단적인 低油價판매정책을 취함으로써 단위당 생산비용이 높은 非OPEC산유국에 경쟁력과 경제성이 떨어지는 한계유전이 발생하게 되고, 그 틈을 타서 매장량이 풍부하고 생산원가가 저렴한 사우디가 덤핑공세에 나서게 되었다. 그러나 가격경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非OPEC로부터 기대했던 굴복의 징후는 보이지 않고 油價만 배럴당 10달러 이하로 폭락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자 OPEC회원국들은 정책의 실효성에 점차 회의론을 갖게 되었고, 다시 산유량감축으로 복귀하려는 기운이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현물시장은 곧 회복세를 보여 고정유가인 18달러선에 접근하고, OPEC산유국들도 과거와 같은 무리한 油價인상은 자해행위일 뿐이라는 현실인식과 소비국 또한 급등·폭락보다는 적정수준의 안정된 가격수준이 바람직하다는 상호공통된 인식이 작용하여 1987년 이후 원유가격은 배럴당 16~18달러선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4. '90년대 OPEC의 油價 시나리오

최근 OPEC(석유수출국기구)는 3가지 油價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여 오는 2000년까지의 자유세계 석유수급전망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전망은 OPEC 사무국이 감시위원회 8개국의 전문가 도움을 받아 작성한 것으로 OPEC 중장기 전략수립의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3가지 시나리오는 OPEC 평균油價가 향후 2000년까지 다음과 같이 변화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 1) 低油價 시나리오 : 명목가격인 배럴당 18달러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 2) 高油價 시나리오 : 현 18달러 수준에서 연평균 3%내외의 실질가격상승이 계속되는 경우
- 3) 中油價 시나리오 : 실질가격 18달러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각 경우에 있어 자유세계 GDP 성장률은 '90년대 전반까지 3.3~3.6%, 후반에는 3.6~3.0%, 또 OECD 인플레이션은 연간 4.3~4.7%로 전제되고 있다.

低油價 시나리오의 경우, 자유세계 石油소비는 연평균 1.8%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져 OPEC의 시장점유율은 크게 확대되어 2000년대에는 59%까지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 매장량 보유가 큰 몇몇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 회원국의 생산능력이 한계에 도달함으로써 OPEC의 쿼타배분문제는 '91년을 전후하여 저절로 해결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石油수입이 낮기 때문에 OPEC의 재정상태는 불만족일 수 밖에 없다.

高油價 시나리오의 경우, OPEC 石油수입은 크게 확대될 것이나 자유세계 石油소비는 담보상태에 머물게 될 것이다. 특히 '90년대 후반에 가면 수요의 정체로 OPEC 石油의 판매확대는 오로지 非OPEC의 공급감소분에 그칠 수 밖에 없어 OPEC의 시장점유율 확대는 제약을 받게 된다. OPEC의 잉여생산능력이 크기 때문에 쿼타를 둘러싼 회원국간의 갈등은 2000년에도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우기 소비국의 에너지절약, 石油 대체노력의 강화 등이 예상될 수 있어 OPEC측은 이를 우려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中價格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성있는 것으로 OPEC내부에서는 잠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에 의한 자유세계 石油소비는 향후 2000년까지 연평균 1.1%(물량으로는 57.5만B/D)씩 증가하여 2000년도 OPEC 石油에 대한 수요규모는 30.2백만B/D (시장점유율 53.6%)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OPEC의 쿼타배분문제는 1994년경에는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OPEC는 油價급등보다 장기·안정적인 가격유지를 지향하고 있으며, 현재의 가장 큰 난제로 되어있는 쿼타배분문제에 있어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즉대체로 '90년대 전반에 가면 해결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보인다.

5. '90년대의 도전과 우리의 대응

OPEC의 油價시나리오에 따르면 제3의 석유위기는 '70년대에 겪었던 악몽에서 오는 과대망상이라고 단순히 매도되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서도 밝혔듯이, 세계 石油매장량은 한정되어 있고 또한 세계의 화약고인 中東 지역은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할 수 없다. '90년대의 中東정세는 美·蘇의 新데탕트 분위기와 힘의 다극화현상에 기인해서 다수 안정될 것이라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美·蘇 양국이 대규모 전쟁을 원하지 않는 이상, 실사 지역전쟁이 재발될 경우에도 이를 극소화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990년대의 국제유가는 中東분쟁재발로 인한 급격한 변동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분쟁재발의 경우에도 油價에 대한 영향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90년대는 변혁의 시기이다. 中東지역은 세계 정치전망과는 별도의 내부적 진통으로 언제든지 지역적

분쟁이 재발될 수 있고, 또한 OPEC에 집중되어지는 油價통제력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지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횡포로 돌아설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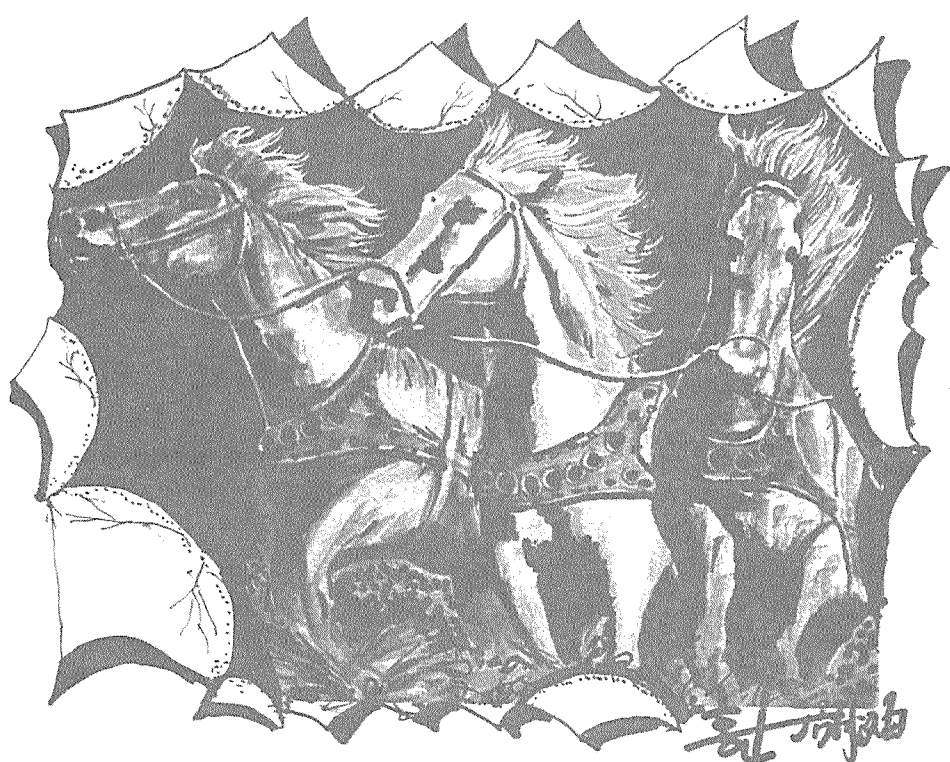
「위기는 올 수 있다」 그 누가 베를린 장벽개방이나 루마니아의 자유화 진전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는가? 반대로 低油價의 가능성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으나, 공급과잉에 의한 저유가는 일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90년대 石油시장의 전망은 대체로 안정상태에 있을 것이나,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 石油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항시 油價동향에 유동적으로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시각을 더욱 국제화시켜 장기적인 안정적 원유공급원을 확보하고 국제석유시장에 대한 정보망을 더욱 튼튼히 가동시켜 급격한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또한 수요측면에서도 石油의존도를 점차로 줄여나가서 에너지자립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석유위기는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변수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독립변수이므로 우리는 항시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만 하는 것이다. ♣

석유안경



원유

건강한 새해 기름의 선택